

김경열 교수의 이사가는 거룩한 백성

제11강: 발람 이야기(22-25장)

I. 오늘의 포인트

- 1) 발람 이야기의 지리적,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다.
- 2) 발람과 나귀의 실랑이를 통해 몇 가지 영적 깨달음을 얻는다.
- 3) 발람과 발락이 세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한 과정을 추적한다.
- 4) 발람이 결국 주동했던 바알브올 음행 사건의 전말을 살펴본다.

II. 본 강의

1. 발람 이야기의 지리적, 역사적 배경

1) 미리암 사망부터 아론 사망까지: 제 40년 5월 1일

날 짜	내 용
제3년 1월	바란광야(가데스) 미리암 사망(1절): 미리암의 나이 80세 안팎 (아론 38년 후 123세에 사망)
제3년 1월 직후	물 불평 사건과 모세의 불순종(2-13절)
제3년 이후	에돔 땅 통과 실패 - 우회 우회와 38년간 방랑(14-22절)
38년 기간(공백)	“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”(22절) 민수기 33장에 여정표가 정리됨
제40년 모월	호르산 도착. 호르산 = 모세라(산 10:6)
제40년 5월 1일	아론의 사망 (25-29절): 민 33:39에서 언급

2) 아론 사망 이후: 제 40년 5월 이후

제40년 5월 이후	호르산에서 복상 - 네겝 근처 아랏 전투: 승리
	아랏에서 남하 - 다시 에돔 우회(21:4): 불뱀 사건
	에돔 통과(21:10-12) : 오봇 - 이에아바림 - 세렛 강 도하
	“가데스에서 세렛 시내 건너기까지 38년” (신 2:14)
	모압 통과 - 아르논 강 도하(민 21:13; 신 2:18, 24)
	비스가 산 도착(21:20) = 아바림 산(민 33장): 느보산 앞 - 아모리왕 시혼과 바산왕 옥 격파
	모압 평지에 정박함(22:1) - 바산 격파 후 남하 발람 이야기의 시작

3) 모압왕 발락의 등장

- (1) 발락은 애초에 이스라엘의 국경 통과를 허락
- (2) 그러나 그는 아모리를 연달아 격파한 이스라엘을 두려워함
“이스라엘이 모압 본진을 치러 내려올지 모른다!”

(3) 발락의 대책 마련

미디안과 동맹하여 대책을 구상: 모압과 미디안의 관계는?
미디안 장로들에게 자문을 구함
대안: 용한 무당 발람을 초청하자!

4) 점술가 발람의 등장

- (1) 메소포타미아 브돌 출신: 640 km 거리
- (2) 전 중동 지역에 신통력이 소문난 무당: 초대할 만 했음
- (3) 데이르 알라(Deir 'Alla) 비문(주전 9세기)에도 등장
 - * 요단 동편의 사람으로 소개됨
 - * 다소 과장된 이야기로 전설화된 발람으로 각색됨
 - * 그만큼 대단한 족적을 남긴 인물

2. 팔레스타인(모압)을 향해 떠나는 발람

1) 발람의 1차 사절단 파견

- (1)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(고액의 복채 준비): 흥정 실패
- (2) 발람이 하나님께 물음 “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합니까?”
- (3) 하나님이 막으심 “저주해선 안된다!”

2) 발람의 2차 사절단 파견

- (1) 높은 고관들로 구성(복채를 넘은 파격적 예우 약속) (15-17절)
- (2) 발람의 답변에 엿보인 심리는?
“내게 막대한 은금을 준다 해도 안가겠다. . . .”
“내게 무슨 말을 할지 알아보겠다. . . .”
- (3)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답변
“길을 떠나라. 그러나 내가 지시한 말만 하라”

3) 나귀 에피소드

- (1) 나귀(노새 아님)는 고관대작들이 타고 다님
- (2) 여호와와 사자(=여호와)가 불칼을 들고 길을 막으심, 왜?
- (3) 나귀와 발람의 대조: 세 번의 이탈과 세 번의 매질
 - * 나귀는 보고 발람은 보지 못함(발람의 수준)
- (4) 나귀와 발람의 대화: 순종해온 나귀와 불순종하는 발람
- (5) 발람의 고백: “내가 범죄했나이다” 이것의 의미
- (6) 하나님이 재다짐을 받으심 “내가 지시한 말만..”

4) 말을 하는 나귀를 어떻게 이해?

결국 이솝 우화 따위인가? 아니다

* “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...” - 놀라운 이적으로 취급

성경에서 뱀과 나귀가 말함 - 둘 다 초자연적 존재 개입

* “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니...” - 역시 같은 종류의 이적

벧후 2:15-16 “그(발람)는 불의의 샅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

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”

3. 발락과 발람의 실랑이: 3차에 걸친 저주 시도

저주 시도	장소	내용	응답
1차 시도	바알의 산당 (바못 바알) 21:19-20 “바못” - 비스가산 일대	1) 이스라엘 진영의 일부 보임 2) 7제단/수소, 숫양 각 7마리 * 여러 제단 - 이방적 배경 3) “언덕길”에서 신탁 받음	1) 이들은 홀로 살 것 2) 엄청난 야곱의 티끌 3) 이스라엘을 부러워함
2차 시도	소빔들(고원지대) - 비스가산 일대 “관찰자들의 평지”	1) 더욱 시야가 좁음(13절) 2) 동일한 수의 제단과 제물 3) “저기서” 신탁 받음 * 발람의 심리는?	1) 하나님말씀의 불변성 2) 이스라엘 = 들소, 사자 3) 점술/복술이 안 통함
3차 시도	브올산 - 비스가산 일대 “바알브올 사건” 의 장소(25장)	1) 모압 평지 전체가 보임 2) 마찬가지로 방식의 제사 3) 제단에서 말씀 받음 * 성령이 엄습	1) 이스라엘 = 풍성한 동산 2) 아각보다 위대한 나라 3) 이스라엘 = 들소, 사자 4) 축복과 저주의 근원
발람의 추가적 예언	분노를 터트리는 발락을 향한 저주의 선언 “너는 어리석다” “여호와가 너의 부와 명예를 막았다” 1) 이스라엘에서 “한 별” 나올 것이다. “한 규”가 일어날 것이다. * 다윗,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2) 모압의 멸망, 셋 족속(모압과 친분?)의 멸망 3) 에돔의 멸망 4) 아말렉, 겐(미디안), 앗수르, 에벨 족속의 패망		

* 왜 이렇게 발람 이야기는 장황한가? - 이스라엘의 축복의 반복적 강조를 위함!

4. 바알브올 사건(25장)

- 1) 모압 광야의 싯딤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
- 2)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과 음행: 제의적 음행
 - (1) “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”(25:3) - 바알브올 = 브올의 바알(‘주인’)
 - : 모압의 바알(= 그모스) 숭배에 참여함
 - (2) 제의적 신전 성관계가 수반됨
- 3) 우발적 사건이 아닌 발람이 주도한 모압의 새로운 전략이었음(31:16)

“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브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” - 발람의 본색이 드러남

“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
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
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” (계 2:14)

- 4) 결과: 하나님의 역병의 재앙이 임했고 비느하스의 활약에 의해 문제 해결
- (1) 비느하스가 현장범들을 즉결 심판: 시므리(지도자)와 고스비(미디안 공주)
 - (2) 재앙이 멈춤: 24,000명 사망
 - (3) 비느하스의 가문의 영원한 제사장직 보장(25:12-13)

III. 오늘의 적용

- 1) 결코 무당의 굿거리와 점술에 의존하는 신자가 되선 안된다.
- 2)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 해선 안된다.
- 3) 발람은 불완전한 믿음을 보여주지만, 물질보다 말씀을 우선시하는 교훈을 얻는다.
- 4) 영적인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큰 기적이다.
- 5) 비느하스! 교회를 살리기 위해 때론 빠르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.

